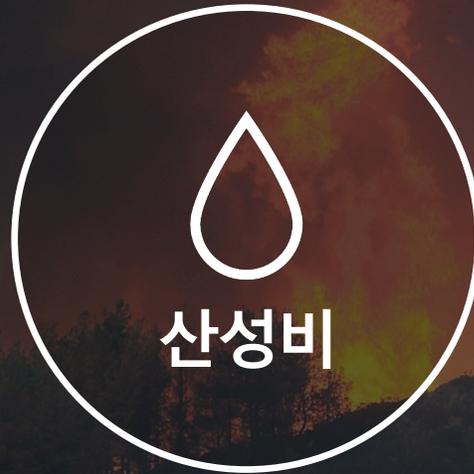


산불예방 및 민둥산 복구 프로젝트 제안서

영신 바이오 101

산불이 잘 발화되고 잘 꺼지지 않는 이유?



낙엽이 쌓여있고
산성비 때문에 미생물이 활동을
하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음

⇒ **산불이 한번 발화되면
잘 꺼지지 않는 이유**

피할 곳 없는 식물 사라지는 청정지역

과거 청정했던 시절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연적으로 부식을 시켰는데
산성비와 산성화된 토양때문에 지금은 미생물이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계속 공기는 오염되고 산성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식물들이 피할 곳이 없다.
어떠한 청정 지역에도 지금은 산들의 청정함이 사라졌다.

비가 오염되고 산불이 난 민둥산 같은 경우는 산성화가 심해
복원이 잘 되지 않아 식물이 자라지 않고 황폐화 되어 가고있다.

토양은 영양도 없고 가뭄이 심하고 척박한 상황이다.

사전에 산불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산불 발생 후에는 복원을 돕는 101 그린톡톡



✔ **산불 예방 및 피해 확산 절감**

✔ **산불 피해 복원**

101 그린톡톡

주요 특징



산이나 토양의
토착 미생물 활동을
증폭시키는 영양제



식물의
성장 촉진을
돕는 역할



병해충과
바이러스에 대한
강한 살균 및
살충 효과



친환경
무농약으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

산불 예감 및 피해 확산 절감 방안

1. 산불 예방 및 화재 대처방안

101그린톡톡을 희석한 물에 씨앗을 혼합하여 산에 살포시 뿌리면

나뭇잎, 나뭇가지, 죽은나무등을 한 달 안에 빠르게 부식시키고

산의 초목화를 3개월 후 확인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이 가능합니다.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이 잘 타는 점화원이 줄어들어 발화율이 감소 됩니다.



산불 예방 및 피해 확산 절감 방안

2. 국립공원, 일반공원, 휴양림, 골프장 등에서의 적용

- 101그린톡톡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
공원이나 잔디에 농약대신 101그린톡톡으로 친환경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사람이 맨발로 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을 좀 더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101그린톡톡은 살인진드기, 찌찌가무시 등
병해충 및 바이러스 살충, 살균 방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산불 예방 및 피해 확산 절감 방안

3. 관리가 어려운 오래된 천연보호수의 쉬운 유지 관리

- 천연 기념물 고목과 고송

: 관리가 어려운 오래된 천연 보호수 고목과 고송 등을 보다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 도심의 가로수

: 농약 살포로 민원이 많고 관리가 어려운 도심의 가로수도 친환경 무농약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체 주기가 길어져 비용절감이 됩니다.

이렇듯 "101그린톡톡"은 산불 예방 및 확산방지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1 그린톡톡의 활용분야

산사태 방지 및 예방 효과

101 그린톡톡 사용으로 초목화가 이루어져
식물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민둥산이나 산사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산사태 방지 사업 등에도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원할 수 있는 제안방법

: 101그린톡톡(씨앗 침지로 발아율 증가)

1. 대형 큰 수조에 "101그린톡톡"을 1000:1 비율에 맞게 희석한다..

병해충 바이러스 방제시 500:1

2. 제일 먼저 잡초 씨앗을 넣는다.

땅에 토사 흘러 내림을 방지하고 수분을 잡아주어 숲을 빨리 이루고
기본 지력이 생기면 잡초가 자라고 곤충이 생기고 새들이 찾아옴

3. 각종 산양산삼 씨앗 / 도라지 / 맥문동 / 산딸기 /

약초 씨앗 / 야생꽃 등을 혼합하여 헬기 드론 등 이동용 기구로 살포한다.



효과



살포후 1개월

낙엽이나 나뭇가지
모두 부식됨



살포후 3개월

잡초들이 산에 뿌리를
내리고 각종 씨앗들이
발아하여 자리를 잡게됨



살포후 1년

숲이 만들어지고
먹이사슬 생태계가
복원됨

우리가 불이 난 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물에 종자나 씨앗을 넣어 살포하면 효과가 없으며 10년 넘게 걸림

101그린톡톡으로 산에 살포할 경우

- ✔ 한달이면 나뭇잎, 나뭇가지는 1달만에 부식됨.
- ✔ 채선충변 같은 바이러스나 벌레같은 해충 살충효과가 뛰어남.
- ✔ 토양에 좋은 토착미생물은 몇백배로 활성화시킴.
- ✔ 씨앗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초목이 우거짐.

씨앗들이 자라고 초목화가 되며 울창하게 바뀌는데 1년도 걸리지 않게됨. 이후 생태계가 살아나면 산딸기 등 식물들이 자라나며 먹이 사슬에 따라 그걸 먹는 짐승들이 오고 짐승들의 천적이 생겨남.

또한 우리가 산에 죽었던 나무를 베어내는데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되지만

"101그린톡톡"을 활용하면 가만히 두어도 나무들은 금방 부식토로 바뀜.

101그린톡톡으로 산에 살포할 경우

"101그린톡톡"을 활용하면 미생물들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켜
죽은 식물들은 빨리 부식되게 도와주며 살아있는 식물은 영양을 주어
빨리 자라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토양도 산성된 땅들이 알카리성으로 돌아오면서
식물들이 살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기존 불이 난 토양은 더욱더 산성으로 바뀌어 식물이 살아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



초목이 우거지면 마른 낙엽이 쌓여있는 산에 비해
초목이 많으면 불이 잘 붙지 않고 번지는 속도도 훨씬 줄어들어
산불이 발화하더라도 끄기 쉽다.



현존하는 방법으로 이만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101그린톡톡"이 살포된 나무를 건강하게 하며
바이러스나 충들은 거의 다 잡아주기 때문에
소나무 채선충병에도 효과가 있다.

※ 일반 물에 하면 효과가 없는 이유

일반 물에 씨앗을 넣어 뿌려도 발아가 안됨.

살포 후 낙엽위에 씨앗이 떨어져 땅에 닿지를 못함.

운이 좋아 땅에 닿아도 영양이 없어서 잘 크지를 못함.

"101그린톡톡"이 혼합된 상태에서 살포하게 되면

낙엽도 빨리 부식됨으로 씨앗은 자리를 잡아 발아가 되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짐.

* 헬기에 위의방법으로 화재가 난 산에 일부분을 정해서 한쪽만 테스트해보면 결과를 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